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8.(금) 18:15 < 7.29.(토) 조간> 배포 2023. 7. 28.(금)

정상 방일(訪日)('23. 3. 16.~17.) 이후, 일본 3대 경제단체 모두 한국 경제계와 협력

- 일본 경제동우회(일본 3대 경제단체), 전경련과 한-일 기업 간담회 열려
- 이창양 장관, 국제적(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 등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 당부

12년 만에 한일 양국 간 왕래 외교(셔틀 외교)가 재개(3. 16.(목) 도쿄, 5. 7.(일) 서울, 5. 21.(일) 히로시마, 7. 12.(수) 리투아니아)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됨(6. 27.(화) 일본 각의 결정, 7. 21.(금) 시행)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과 사업(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경제인들의 교류·협력이 빨라지고 있다.

한일 경제인회의(5. 16.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6. 9. 대한상공회의소-일본상공회의소), 한일 산업협력포럼(7. 6. 전국경제인연합회-경제단체연합회) 등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교류가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3대 경제단체(경제단체연합회,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중 하나인 일본 경제동우회가 7. 28.(금) 방한(訪韓)하여, 전경련과 함께 「한-일 기업 간담회」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일본 경제동우회 소속 10개사 대표를 비롯하여 한국의 주요 기업 9개사 대표가 참석하여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3월 정상의 방일(訪日) 이후, 불과 4개월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네 차례나 개최되면서 한일관계가 완전히 복원되었다."라고 평가하고, 굳건한 양국 간 신뢰 관계 속에서 속도감 있는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들에게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협력, ▲기후변화 등 국제적(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 ▲제3국으로 협력 범위 확장, ▲미래세대 간 교류 지속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도 적극적으로 양국 기업들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주원석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4-203-567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일본경제동우회 訪韓 계기 한-일기업 간담회 계획**

□ **경제동우회 : 일본 내 경제 3단체**(경단련, 상의, 동우회)중 하나

* **경영자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특정 기업·업계의 이해에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3.7.28(금) 18:00~20:00,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2층)

○ **일 정** * 한-일 동시통역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8:00~18:15	**리셉션**	▸ 에메랄드룸 앞 포이어
18:15~18:20	**기념 촬영**	▸ 에메랄드룸
18:20~18:45	**환영사**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대)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답사	▸ 니이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회장
	축사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건배사	▸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18:45~20:00	**만찬 및 환담**	

○ **참석자 : 한-일 주요 기업 20여명**

- **(한국)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회장(LS이사회 의장), **정기선** HD 현대 사장, **고정석** 삼성물산 사장, **박상규** SK엔무브 사장 등

- **(일본) 니이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회장**(산토리 회장), 다마츠카 겐이치(日 롯데홀딩스 대표), 이와이 무츠오(日담배산업 이사회 의장), 다카시마 코헤이(오이식스 라 다이치 회장), 마사아키 콘도(日 국제문화회관 회장) 등 11명